>>> 복경기 이후 하반기 육계 경기 전망

냉동 비축물량 소진 여부가 가격 등락폭 좌우

이 형 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 양계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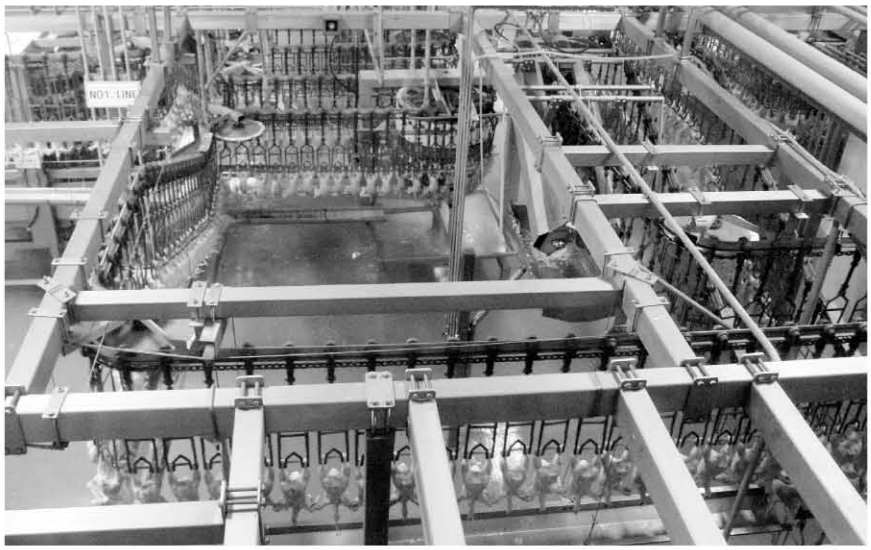
1. 현 황

지난 4월 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후 서울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6월 16일 현재까지 신고 68건, 발생 33건으로 나타났으며, 살처분 마리수(예방적 살처분 포함)는 닭 · 오리 등 836만 수에 이르렀다. 지난 2003/04년(국내 1차 발생)과 2006/07년(국내 2차 발생)에도 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올해 발생한 HPAI는 겨울철이 아닌 봄철에 발생하였다는 점, 빠른 시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점 등에서 과거 발생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HPAI가 지난 5월 12일을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발생 신고가 없어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HPAI 발생 이후 소비 심리 위축으로 닭고기 소비가 크게 감소하여 가격이 하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여름철 복 경기와 하반기 육계 경기에 대해 조심스럽게 전망하고자 한다.

2. 병아리 생산 잠재력

육용 종계 병아리 입식수수를 이용한 6~10월까지의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다음과 같다. 7월 초 ·



중복(7월 19일, 29일)에 영향을 미치는 6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전년 동기보다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6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는 2007년 2~11월 종계 입식수수가 521만 수로 2006년 동기간보다 9.9% 증가하였으나 종계 도태와 살처분으로 종계가 감소하여 예상 잠재력보다 크게 낮았다. 7월 이후의 병아리 잠재력 또한 전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종계 감축(60만 수)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복 이후 연말까지 병아리 생산 잠재력 감소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태 및 살처분으로 7월 이후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전년보다 낮아 사육수수는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육수수 감소로 도계수수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1. 7~11월 육용 실용계 병아리 생산 잠재력 지수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2008년(A)	96.0	89.2	88.9	92.3	92.3
2007년(B)	100.0	95.7	99.4	105.4	109.0
증감률(A/B, %)	−4.0	−6.7	−10.5	−12.4	−15.3

주: 잠재력 지수는 입식된 7개월전 10개월 누적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육용 종계 도태수수를 고려하여 2007년 6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100으로 함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3. 냉동 비축과 수입

HPAI 발생 후 닭고기 소비 감소로 6월 1일 닭고기 냉동 비축은 3월말(493만 수)대비 2배 이상, 전년 동기대비 42% 증가한 1천 4백만 수 였다. 정부에서 계열사를 주축으로 비축한 물량은 향후 여름철 닭고기 수요 증가시 방출될 가능성이 높다.

닭고기 수입량을 살펴보면, 국내 육계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1~5월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증가

하였다. 이는 수입업체 주문이 AI가 발생하기 직전인 3월까지는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6월 닭고기 수입량은 5월보다 증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닭고기 공급이 감소하여 국제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7월 이후 닭고기 수입은 국내 소비 회복과 육계 가격 상승 여부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2. 냉동 닭고기 비축현황(6월 1일자 기준)

단위: 천수

구 분	미절단	절단	부분육	삼계	계
2008년(A)	7,025	573	2,926	3,199	13,723
2007년(B)	3,865	615	3,691	1,489	9,664
증감률(A/B, %)	81.6	−6.8	−20.7	114.8	42.0

자료 : 한국계육협회(회원사)

4. 수 요

HPAI 발생 초기에는 닭고기 소비 감소가 20~30% 수준이었으나, HPAI가 서울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소비 감소폭이 더 커져 최대 70%까지 이르렀다. 농협(4대 매장) 닭고기 매출액은 4월 1일 14,832천 원에서 6월 12일 현재 14,137천 원으로 5% 감소한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월별 도계지수를 보면, 해마다 7월은 닭고기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초복과 중복이 있어 연중 소비가 가장 많은 달이다. 육계 시장에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육계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달이기도 하다. 최근, HPAI 상황이 안정되고 있어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경우 소비 회복 속도가 빠를 수 있다.

표3. 월별 도계(소비)지수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도계지수	83.9	74.3	82.4	89.6	108.0	120.3	144.9	117.2	96.9	92.4	92.3	97.8
비 고							초 · 중복	말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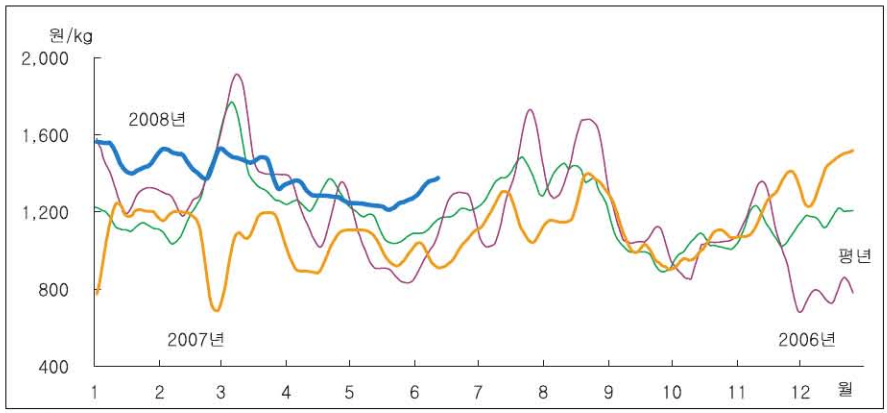
주 : 도계지수는 1996~2007년까지 해당월의 평균 도계수수를 구하고 그 평균을 100으로 함

5. 가격 전망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HPAI의 마지막 발생 시점에서 양계산물 가격이 회복되는 데 걸린 기간은 최소 1개월로 나타났다. 최근, HPAI 상황이 안정되고 있어 질병이 추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6월 하반기부터 가격은 회복세가 예상된다.

현재 닭고기 수매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며, 향후 종란 400만 개 폐기, 종계 10% 감축(60만 수) 등이

계획되어 있다. 생산 부문 감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가 정상으로 회복되면 7, 8월 육계 가격은 강세가 예상된다.



주: 평년은 03~07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5일 이동평균가격)

〈그림1〉 육계 산지가격(농협발표가격)

7월과 8월 여름철은 조심스럽게 호경기를 예측할 수 있으나, 문제는 9월 이후이다. 여름철에 닭고기 비축 물량이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비수기로 접어드는 9월로 이월될 경우 육계 가격은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된다. 냉동 비축 물량 소진 여부가 하반기 육계 가격의 등락폭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계

♣ 완벽하게 소독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
계사 청소대행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기업
국내 최대 기기 보유
완벽한 소독
남두축산그린
휴대폰 : 011-573-8327
011-545-0643
팩 스 : 053-325-1556